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암 스님(2)

비구니,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네가 어느 길로 왔느냐'는 공안에 무어라 답 하시겠습니까

혜 암, 어찌 가서 그스님에게 묻지 않느냐

한 비구니가 혜암(惠菴, 1886~1985) 조실스님께 찾아와 고하였다. "제가 통도사 극락암으로 경봉 스님을 찾아오니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네가 어느 길로 왔느냐?' 하셨습니다. 제가 이에 대답을 못 하였는데, 만일 스님께서 이 공안을 질문 받으셨다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어찌, 가서 그 스님에게 묻지 않느냐?"

수개월 후 마침 도리암에 불사가 있어서, 이 비구니가 경봉 스님을 모시고 산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질문했다.

"스님, 도리암에는 길이 없거늘 어니 길로 가십니까?"

극락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상징

경봉 스님

大道 이르는 문 '無門'으로 일컬어

경봉 스님은 극락암을 극락으로 비유하면서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느 길로 왔느냐?'고 학인스님에게 낱 시발을 던진다. 그러나 학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길이 없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극락은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을 상징한 말일까? 마치 '문 없는 문'의 관문(無門關)처럼 입구가 보이지 않는 꼭 막힌 은산벽처럼, 문을 찾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기에 철 벽같은 관문으로 남아있는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문 없는 문, 길 없는 길은 영원히 막혀있는 것일까. 혜암 스님으로부터 선문답의 되받아치는 법

을 배운 학인스님은 이번에는 도리암을 도리천에 비유해 경봉 스님께 길은 없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고 제법 당돌해진 학인이 대견했는지, 경봉 스님은 먹살을 잡고 '이 놈 봐라!' 하며 도리천 가는 길을 일러준다.

얼마 뒤, 이 문답을 들은 혜암 스님은 '그 길로 왔다'고 평을 한다. 길도 없는 곳에 나타난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란 말인가. 김영삼 前 대통령이 즐겨 쓰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출전인 <무문관>에 나오는 유명한 계승(偈頌)에 힌트가 보인다.

"대도를 깨닫는 고정된 문은 없지 만(大道無門) 그 문은 또한 어떤 길에도 통하고 있네(千差有路), 이 문이 없는 관문을 통과한다면(透得此關) 그 사람은 천지를 활보하며 자유자재하리라(乾坤獨步)."

무문해(無門解) 선사 <무문관> 서문에서 읊은 이 계승은 대도의 문은 문을 찾기 어려워 '무문'이요, 문 아닌 곳이 없어 시방세계가 그대로 '무문'이라는 이중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주 선사는 "큰 길은 장안(長安·서울)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어느 길이란 깨달음의 세계로 통하지 않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전도된 고정관념과 망상·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볼 수 있다면 문 아닌 곳이 없고, 길 아닌 길이 없다. 대문 밖을 나서면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건만, 이정표를 잘못 보고 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법. 정법(正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김성우 객원기자

'나무아미타불' 염하니 여기가 바로 극락

"아미타불신금색(阿彌陀佛身金色) 상호 광명무등륜(相好光明無等倫) 백호완전오수미(白毫宛轉五須彌)..."

2005년 봄에 11월 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창덕궁 앞에 전병통 원장(위원장 원희원)의 무상보시로 문을 연 아미타사 2층 법당. 예불과 향찬(香讚)에 이은 불찬(佛讚)아미타 부처님을 찬송하는 노래에 감미로운 곡조를 타고 이어진다.

대만에서 염불법을 익힌 자립 스님(승광사)이 향찬, 불찬, 연지찬(蓮池讚), 회향계(回向偈) 등을 전통 운율에 맞춰 선창하고 대중이 따라 부른 후, 대만의 고승 정공(淨空) 스님의 <무량수경(無量壽經)무량수장엄정정경(無量壽經) DVD영상 강의가 이어진다. 자립 스님은 화편을 보면서 동시통역으로 대중들이 법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 연종(蓮宗·정토종)의 13대 조사인 인광(印光) 대사의 인장을 받은 정공 스님의 법문은 선(禪)과 염불은 물론, 화엄, 법화, 반야, 유식 사상을 아우르는 일승(一乘) 법문으로 염불행자들의 마음밭을 적신다.

정공 스님은 <무량수경>을 강의하면서 "한 생애 서방으로 가는 것은 팔지보살(八地菩薩) 등의 지혜와 신통, 덕과 공능, 활용을 얻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면서 "이는 사실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처님은 거짓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강조한다.

1992년 6월 29일부터 12주 동안 미국에서 강연된 정공 스님의 <무량수경> 법문은 무려 60개의 녹음테이프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경에는 현교와 밀교의 성(性)과 상(相), 사물의 이치(事理), 인과(因果)가 남김없이 들어 있어 정토법문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한다. 정공 스님은 경장(經藏)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17년 동안 화편을 강의한 후에 등각보살과 상상 근기의 최정상 인물들이 마지막에는 모두 염불하여 정토에서 태어나기를 발원한 사실을 깨닫고, 염불 수행과 설법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공 스님의 <무량수경> 강의를 끝내자, 자립 스님은 향찬, 불찬, 연지찬, 회향계의 곡조를 아뢰이시여 박할 정도로 선·후창을 반복하며 외우도록 한다.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염불을 부르고 듣다 보면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희심이 난다. 운율에 맞춰 염하는 아미타 불 정근 역시, 기억에 남는 곡조여서 절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정겹다. 원호 스님이 북과 장구를 치며 동태방에 다니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한 까닭이 실감난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닦아서 명심견성(明心見性)하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배운 불·조사님들의 은혜가 절실하게 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방정토만을 인정하

아미타사 법당 '선정쌍수' 공부 현장

는 염불과 유심정도를 강조하는 염불, 유심 정도와 서방정토를 하나로 보는 입장 등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염불행자들은 원호 스님과 중국의 관정 스님, 대만의 정공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로 크게 나뉘기도 한다. 하지만 아미타사에서는 이런 다양한 염불법문을 원용하여 선(禪)과 염불을 함께 뒤는 '선정쌍수(禪淨雙修)'의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4조도신, 5조홍인, 6조혜능, 무상, 영명 선사 등 역대 조사들은 물론 보조, 통산, 태고, 서산, 감산 선사들의 법문에도 나타나는 견해이기도 하다.



염불에 꼭 빠진 아미타사 신도들(위), 동시통역에 나서 신도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자립 스님(왼쪽), <무량수경>강의를 하는 대만의 고승 정공 스님(오른쪽 DVD 화면).

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불은 바로 자기의 '자성이 염불하는 것(自性念佛)'입니다.

아미타사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은 이런 자성염불에 이르러 한층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성염불이 되면 이 일념(一念)을 무념(無念)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정진하여 전신(全身)이 공적(空寂)이 되고 고요한 경지(境界)에 들어오면 지혜의 등불이다"라고 한 법문이 한 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정합일(禪淨合一)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서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일심불란(一心不乱)'의 경지에 들어 자신의 몸 안에서 자성의 법문에도 나타나는 견해이기도 하다.

지난 여름, 86세로 입적한 관정 스님은 본래래목을 깨달은 뒤의 공부에 대해 <자성염불 명심견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꾸준히 수행해 나가면 자연히 자신의 신체로부터 해탈하여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며, 그 때가 되면 자신의 법신이 온 허공계와 우주법계에 두루 총란하여 꼭 차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보신(報身)은 장차 극락세계 상품상생(上品上生)의 열매에 왕생하여 바로 연꽃이 피어나면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얼마 전, 홍공 화장정종학회(華藏淨宗學會)에서 정공 스님을 보고 돌아 온 박병규 변호사는 "큰스님은 염불을 통해 자성을 깨닫고 인류를 구제하며 극락왕생하는 길을 팔십 평생동안 운명으로 보여주셨다"며 "기복이 아닌 구도심에서 수행하는 홍공 불자들을 보고 중국 불교의 중흥이 임박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염불하는功德에 의해서 무위처(無爲處)에 이르고 신통을 얻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염불이나 참선, 관법, 송주(誦咒) 등은 모두가 온갖 번뇌를 없애고 일념, 무념이 되게 하여 청정정공의 세계, 진여불성의 세계를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수행의 맛을 보지 못한 불자들은 가장 쉽고도 빠른 염불로 득력(得力)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02)745-3351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빠다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파타 마스터 권희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개시판. 2월 10일 18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2월 10일 18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2월 10일 18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2월 10일 18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령보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의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02)741-4477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慈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제약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미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사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런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사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닦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세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8,000원 전화: (02)741-4477